



space

JANUARY 2004

434

www.vmspace.com

SPACE INSIGHT

Pixel House

Cho Slade Architecture

헤이리 아트밸리에서 살기...

중학교 교사인 전영호, 장숙희 부부가 헤이리로 이주한 동기는 간단하다. 두 명의 자녀들 - 10살 가을이와 6살 석원이 - 을 위해 공동육아, 대안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실천하고 모색해 나가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헤이리는 자녀들을 위한 산 교육이 될 문화적 자족 과 대안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는 '공간적 여유' 때문이다. 헤이리에 세워지고 있는 건축물들 대부분이 전세공간이고, 주거기 능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추가로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가진 이들의 여유스러움에 비하면 전세 보증금을 베서 이곳 에 마련하는 그들의 첫 건물은 궁극적으로 주거와 두 자녀의 교육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절실함으로 시작된다(그들에 의하면 현재 헤이리에 거주하는 이들은 약 20세대 정도이고 그중 그들처럼 도래의 아이들을 가진 가족은 4-5세대 정도란다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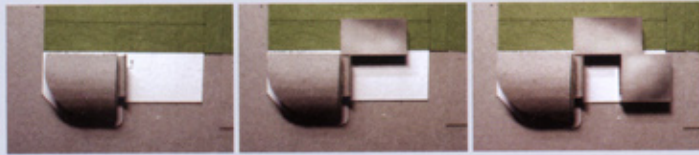


주 출입구 전경



서측면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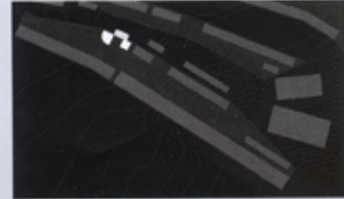
설계: 조민석 + 제임스 슬레이드(조 슬레이드 아키텍처) 설계담당: 이정원, 최순복, 강준구, 원성원, Iya Korolev, Oliver Sprekelsen 위치: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내 헤이리 아트밸리 F-60-1 지역지구: 준도시지역, 시설용지지구 주 용도: 단독주택 대지면적: 273.80㎡(83평) 건축면적: 45.27㎡(13.69평) 연면적: 85.3㎡(25.80평) 건축률: 16.56%(법정 70%, 규정 50%) 용적률: 31.18%(법정 400%, 규정 100%) 용도: 지상 2층(규정 지상 3층이하) 구조: 철근콘크리트골격 조주오아갈: 위장 - 고압시행트베일, 스테인리스 원/내장 - 비제합판, 문동아무, 시고보드위 페인트 안테우아어설계: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구조설계: 이영호 설계: 상정삼이 전가: 전산전기 시공: 천용중합건설 철도: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건축주: 전 영호, 장숙희 설계기간: 2001.9 ~ 2002.8 공사기간: 2003.2 ~ 11 Architect: Cho, Min Suk + James Slade(Cho Slade Architecture) Location: F-60-1 Heyri Art Valley, Tongildongsan, Tanhyeon-myeon, Paju-si, Gyeonggi-do, Korea Site Area: 273.80㎡ Floor Area: 45.27㎡ Total Floor Area: 85.3㎡ Building Scope: 2F Structure: Reinforced Concrete Rahmen Design Period: 2001.9 ~ 2002.8 Construction Period: 2003.2 ~ 11



89평 땅을 위한 3단계 마스터플랜

건축주는 설계자에게 89평의 크지 않은 땅이지만 그 안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공간, 즉 25.8평의 거주공간을 우선 확보하고, 이후에 여유가 생기면 두 단계에 걸쳐 작은 규모지만 대안교육을 위한 주택의 별동을 첨가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거주와 대안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의뢰했다. 결국 설계자에게는 89평이라는 크지 않은 땅을 건물로 채우는 일과 동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땅을 비워 놓아 여유가 생길 때 단계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을지가 설계 초기의 고민거리가 되었다.

이를 위해 89평의 대지가 6등분되어 3단계에 걸쳐 1층 또는 2층의 세 개의 건물들이 대지를 마치 체스판처럼 채우면서 그 결과 건물들과 맞물리는 세 개의 옥외공간들을 만들고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연계된 옥외공간들 세 개의 작은 건물들과 엮여지는 공간의 조직을 구성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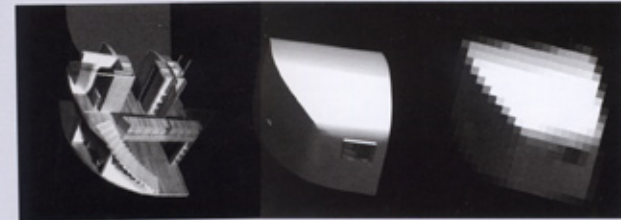
흐려진 경계선 blurred boundary

헤일리 프로젝트들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마스터플랜에 의해 설정된 '경계선', 즉 지을 수 있는 패치 내부와 짓지 않고 녹지로 가꾸려는 패치 외부가 어떻게 건물을 통해 만나는가에 관한 설계자들 각각의 해석이다. 마스터플랜의 지침은 이러한 경계선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위해 지침 안에 지 규모의 10% 이내로 패치 외부에 건축을 허가' 했고 이에의 규정이 체스 판형 배의 근거가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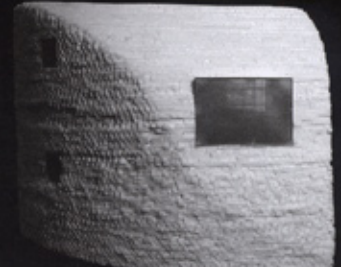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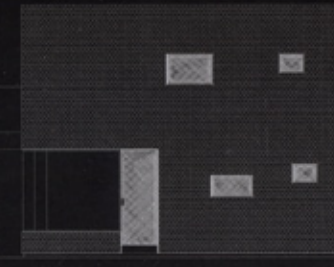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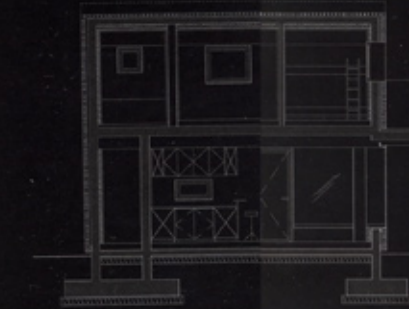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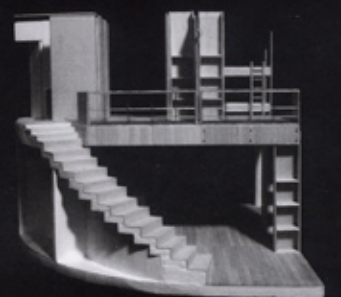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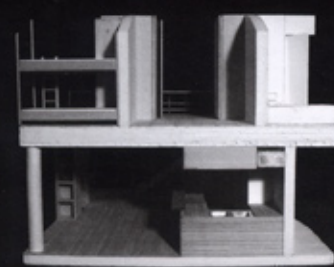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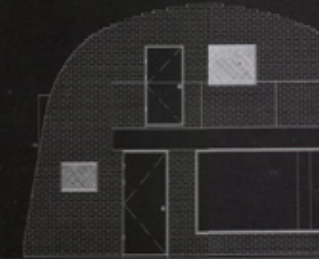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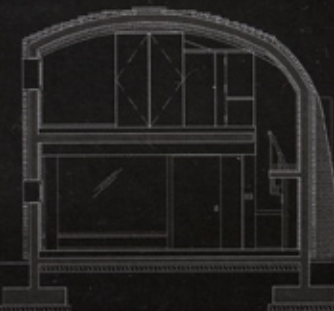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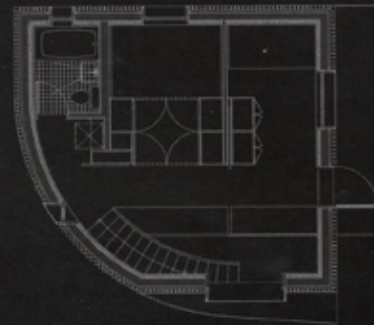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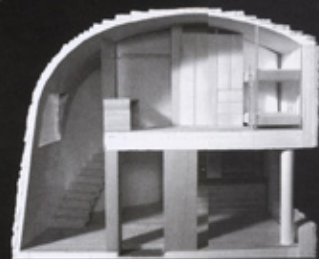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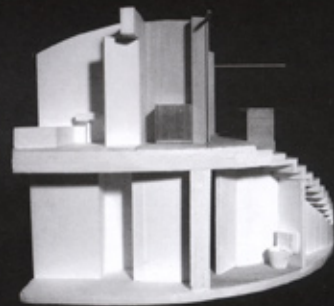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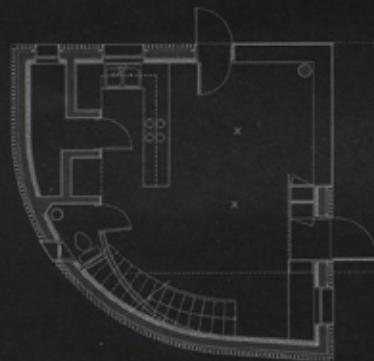
결국 마스터플랜상에 제시된 여러 개의 선형 건물군이루는 선들 중 한 선의 말단에 위치한 이 대지에 헤일리에서는 아마도 가장 작은케일의 건물군이 패치의 경계 사이에서, 모호하게 내·외부를 흐리며 선 끝의 '을 빼면서' 스케일과 기능상의 특정한 조건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. '픽셀 하우스'라는 이름은 배치도 상에 주어졌던 패치 내·외부의 명확한 경계가 흐려지면서 해되는 상황이 마치 디지털 이미지의 불연속적인 픽셀처럼 여섯 개의 땅 조각들 채우기와 비우기를 번갈아가며 이루어짐을 일컫기 위해 부르기 시작하였다.

뿌연 표면 fuzzy surface

이 작은 마스터플랜의 1차 단계인 25.8평의 주택은 하나의 외피(시멘트 파벽돌)로 감싼 단순한 외관으로 대지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. 건축주는 공사기간 중 한때 2단계의 부속동도 함께 지을 것을 고려했으나,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미루고 대신 2단계의 건물과 거의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를 임시 방편으로 배치했다. 낯설지만, 많은 별명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친근하기도 한 것 같은 주택 외피에도 89평 대지 마스터플랜 배치계획에서의 픽셀 아이디어는 동시에 적용된다. 건물 외벽·단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곡면의 외부 표면이 직교체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2만여개의 파벽돌들이 쌓여서 이루어졌다. 이러한 방식의 벽돌쌓기 노동집약의 결과로 이 건물은 그 작은 규모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가지고 있는 뿌연(fuzzy) 표면에서 기인하는 시시각각의 다양한 음영효과로 풍부한 표정 변화를 준다. 눈이 내려와 표면에 쌓이면 이 표면이 또 다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유난히 찾는데 기다려지는 프로젝트다.



'픽셀하우스'의 공동설계자인 제임스 슬레이드는 미국, 브라질, 멕시코,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하여 코넬대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. 콜롬비아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폴케 & 퍼트너스, 리처드 글록스만, 릭 메이더스(런던) 등에서 근무하다가 조만식과 함께 조 슬레이드 아키텍처를 설립했다. 1998년부터 프랫 인스티튜트(뉴욕)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2년부터 뉴욕에서 슬레이드 아키텍처를 설립,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.





1·2층 공간을 이어주는 서가



현관 및 주방



제단실과 2층 복도



거실 및 주방